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나호 보기

2009년 1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컬럼 :

인천의 도시비전과 관광, 그리고 인천방문의 해 사업

인터뷰 :

2009 인천방문의 해 추진기획단 이승학 단장과의 만남



I/D/I/소/식



우리 연구원 2009년도
사무식 거행
우리 연구원의 2009년도
사무식이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1층...

행/사/정/보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행사] 갈등관리시스
템 구축방안 연구회의
(1.15):한국행정연구원
0...

Zoom INcheon



수인선 운행 중단
(1996년 1월 1일)
앞으로 인천과 수원을
연결하는 수인선 복선
전철의 1단계 사업인
인천 연...

도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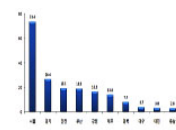
아부다비 사디아트섬
문화특구 조성 계획
사디아트섬은 인공섬
이 아닌 자연섬으로
면적은 약 27km다. 사
디아트섬 ...

IDI연구



인천광역시 메가이벤
트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인천광역시는 2009세
계도시축전, 2014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같
은 메가...

인천지표



지표를 통해 본 인천 :
관광 분야
관광도시로서의 도약
을 위한 원년이 될
2009 인천방문의 해를
맞이하...



인천의 도시비전과 관광, 그리고 인천방문의 해 사업

심진범 연구위원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인천의 미래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관광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할 때이다.

관광산업을 통해 도시성장을 견인하고 새로운 도시매력을 창조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세계인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명품도시 인천 비전의 실현과 관광산업을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관광도시(觀光都市) 인천을 설계할 때이다. 관광도시 인천은 인천관광 시스템의 완결로 실현할 수 있다. 우선, 인천 고유의 자원을 활용, 복원, 창조하여 '인천매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한민족역사문화자원, 근대역사문화자원, 바다·섬·갯벌자원 등은 대표적인 인천의 자원들이다. 활용하고 복원하여 인천매력으로 특화해야 하며, 경제자유구역에는 소위 글로벌 수준의 자원창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고유한 '인천매력'은 선진화된 안내홍보매체를 통해 잠재 관광시장에 전달되어야 하며, 인천매력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인천에는 공장밖에 없겠지"하는 잠재시장의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한국사의 현장이며 전철을 타고 올 수 있는 바다도시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관광교통체계는 '인천매력'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는 시스템 요소이다. 월미도, 개항장, 송도, 인천대교, 영종도, 강화, 옹진 등등 '인천매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관광교통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잘 짜여진 네트워크는 연계 이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체류시간 연장을 가능하게 한다.

인천관광 시스템은 관광서비스 요소의 정비로 통해 완결될 수 있다. 관광서비스 요소는 환대서비스, 숙박시설과 같은 환대서비스 산업, 도시기반시설 등을 의미한다. 관광서비스 요소는 인적 자원 및 관광산업과 관계되는 시스템 요소로 '인천매력'과 상호 보완되어 관광편의 증진과 관광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9년 인천방문의 해 사업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인천관광 시스템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인천방문의 해 사업은 '인천매력'을 국내외에 알리고, 인천과 관광시장의 관계를 형성하고, 공업도시 인천이라는

고착된 이미지를 역사문화도시 인천, 바다도시 인천이라는 새로운 도시이미지로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며 아울러 관광도시 인천을 설계하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다.

2009년, 인천방문의 해가 밝았다. 관광도시 인천, 그 원년이 시작되었다. 2014년 아시아인의 잔치가 열리는 국제관광도시, 2020년 세계인이 교류하는 한국관광중심도시 만들기를 시작하는 원년이다. 무엇보다도 행정기관, 시민사회, 관광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 관광산업 육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비전을 공유하며 서로의 역할을 분담할 때이다. 인천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 나아가 관광도시 인천 실현은 바로 우리 인천의 의지와 준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미래설계에서 관광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할 때이다. 관광산업을 통해 도시 성장을 견인하고 새로운 도시매력을 창조해나갈 필요가 있다. 세계인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명품도시 인천 비전 실현, 관광산업을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급부상하는 관광도시 인천, 2009 관광발전 원년 자리매김



급부상하는 관광도시 인천, 2009 관광발전 원년 자리매김

인천발전연구원 웹진 '아프리에' 30호에서는 인천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2009 인천방문의 해'가 갖는 의미와 비전은 물론 추진 경과와 현황 등을 생생하게 전해 듣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관광 발전에 대한 기대 등을 담아 2009 인천방문의 해 추진기획단 이승학 단장과의 인터뷰를 마련해보았다.



Q. '2009 인천방문의 해'가 가지는 의미와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해주시요.

인천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며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강화의 역사문화자원, 용진·강화의 섬 관광자원, 개항장의 근대문화유산, 경제자유구역의 다양한 현대적 관광시설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메리트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인천방문의 해는 이러한 인천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상품을 국내외에 알리고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인천방문의 해 이후 인천의 관광산업은 한단계 도약하여 관광도시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2009년 인천방문의 해 이후 강화와 용진의 섬 관광상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특화된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며 인천대교가 개통되고 나면 인천의 관광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2009 인천방문의 해'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한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지역방문의 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인천은 울산, 충북, 전북 등과 경쟁을 하여 2006년 12월 28일 최종적으로 '2009 인천방문의 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08년 2월 공무원과 인천관광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인천방문의 해 추진기획단이 구성되었으며, 다음달 확대 개편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8년은 인천방문의 해를 알리는데 주력하여 홍보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1월 1일 팔미도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1월 16일 개막식 선포와 함께 시작됩니다.

인천방문의 해 예산은 총 199억으로 20억이 국비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됩니다. 또한 인천세계도시축전(8월7일~10월25일)과 연계하여 홍보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Q. 2009 인천방문의 해 주요 프로그램 및 이벤트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2009 인천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4개 분야(관광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관광편의 증진, 시민참여 사업) 52개 사업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수요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말씀드리면, 인천대교 개통기념 이벤트로 마라톤대회, 인라인, 오토바이대회, 걷기대회 등 10만명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일본여행사와의 상품개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트 서커스와 자유공원 및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각각 펼쳐질 장르별 문화공연의 향연인 인천마니아 대축제, 문화한마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몰로 유명한 강화 장화리 또는 을왕리를 정서진으로 지정하여 대내의 선포식을 통해 지역인지도를 제고할 뿐 아니라 낙조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의 염원을 담아 강화 철책선 탐사를 평화전망대와 연계해 진행할 것이며 월미도 모노레일과 별빛열차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별빛열차의 경우 2월~9월까지 총 31회 운행할 것이며 체류시간 연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인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다양한 사업과 이벤트들이 인천의 랜드마크화는 물론 세계 속의 관광명소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Q. 2009 인천방문의 해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는지?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고 여행사의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40개 전담여행사와 MOU를 체결하고 있지만 여행업계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라 인식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작년엔 인식 전환을 위해 홍보에 주력했으며 올해는 특히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경제위기에 따른 상품개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계의 참여를 유도해 상품을 개발하는 것과 부족한 관광인프라가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천방문의 해 이후에는 관광인프라의 확충 및 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2009 인천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당부의 말씀은?

인천방문의 해 사업이 대부분 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효과는 민간에게 돌아가는 것인 만큼 관광업계 종사자와 시민 등의 인식전환과 적극적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며 특히, 호텔업계, 요식업계 등 관광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청결과 친절의식이 더욱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와 연계를 구축하고, 요식업계, 호텔업계, 택시기사 등의 연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220개 방문의 해 모범업소를 선정해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방문의 해, 인천세계도시축전, 인천대교 개통에 발맞추어 시티투어버스 노선의 개편을 추진 중에 있어 관광객 뿐 아니라 인천시민들의 편의 증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인천방문의 해의 성과는 인천시민의 결실이기도 하다는 의식, 인천방문의 해는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참여가 인천방문의 해 성공의 열쇠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지난 16일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09 인천방문의 해 개막식과 기념공연 장면.

■ 대담 : 조혜정(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원)

■ 기록 : 장순지(시정연구협력센터)

인천발전연구원 웹진 '아프리에' 30호에서는 인천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2009 인천방문의 해'가 갖는 의미와 비전은 물론 추진 경과와 현황 등을 생생하게 전해 듣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관광 발전에 대한 기대 등을 담아 2009 인천방문의 해 추진기획단 이승학 단장과의 인터뷰를 마련해보았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09년 1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2009년도 사무식

■ 도시축전성공기원제 및 2009 글로벌 리더십 향상을 위한 워크숍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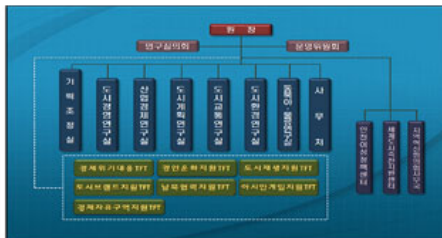
인천시와 도시축전위원회는 지난 10일 강화도 마니산 천성단에서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축전성공 기원제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안상수 인천시장을 비롯 고진섭 시의회의장, 진대계 조직위원장 등은 물론 시민,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축전 성공의 의지를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한편, 우리 연구원 어윤덕 원장과 연구원들은 이에 앞서 9일 열린 '2009 글로벌 리더십 향상 워크숍'에 참석해, '평권을 날게 하는 창조경영(창조경영아카데미 김영한 대표)·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컬쳐노믹스(협성대학교 정규상 교수)·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연세대학교 박영필 교수) 등의 강연을 듣고, 안상수 인천시장의 '인천'브랜드 밸류의 세계화를 위한 간부공무원의 역할과 자세를 주제로 한 특강을 들으면서 연구에 반영하고 접촉할 점들을 구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 2009년도 사무식



우리 연구원의 2009년도 사무식이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1층 대강당에서 있었다. 먼저 승진자 및 신입연구실장에 대한 임용장 수여가 있었다. 사무식에서 어윤덕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2009년은 인천시의 변혁과 발전을 가져다 줄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연구원 전체가 어느 분야에서건 역량을 발휘하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연구에 애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무식이 끝나고 원장과 직원 상호간의 신년인사를 나누고, 캐치프레이즈를 제창하며 전직원 기념촬영을 했다.

■ 연구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우리 연구원(원장 어윤덕)은 시정자문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연구과제의 정책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7실 3센터 1국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다. 인천광역시 실국 단위의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시경영연구실'을 '도시경영연구실'과 '산업경제연구실'로 분리하고, '도시계획교통연구실'을 '도시계획연구실'과 '도시교통연구실'로 분리했다.

또한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도시축전지원센터'를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는 등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인천광역시 주요 시정현안별 전담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위기대응팀(팀장 김번옥), 아시안게임지원팀(팀장 김용하), 경제자유구역지원팀(팀장 허동훈), 도시재생지원팀(팀장 조상운), 도시브랜드지원팀(팀장 이인재), 남북교류협력지원팀(팀장 강승호), 경인운하지원팀(팀장 정태원) 등 테스트포스팀(TFT)을 구성, 지역현안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는 ▲기획조정실장 최원국 ▲도시경영연구실장 이용식 ▲산업경제연구실장 김번옥 ▲도시계획연구실장 조상운 ▲도시교통연구실장 최병국 ▲도시환경연구실장 윤하연 ▲동북아물류연구실장 정태원 ▲사무처장 장택준 ▲세계도시축전지원센터장 이용식으로 구성되었다.

■ 2008년도 종무식



우리 연구원 종무식이 구랍 31일 오전 11시,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먼저 어윤덕 원장의 홍조근장수여식이 있었다. 그리고, 2008년도 우수직원 표창과 2008년 하반기에 실시한 청안대회 및 캐치프레이즈 입상작 발표가 이어졌으며, 장기근속자에 대한 근속기념패 및 기념품 수여도 이루어졌다. 한편, 모든 시상이 끝나고, 어윤덕 원장이 2008년 한해를 정리하며 되돌아보는 의미의 송년사를 전했고, 전직원들은 마련된 다과를 나누며 새해 계획을 설계했다.

■ 연구원, 서구 독거노인에 쌀과 성금 전달



우리 연구원(원장 어윤덕)은 설날을 맞이하여 지난 22일, 서구 연화동 일원의 독거노인들 가정을 방문하여 쌀과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우리 연구원의 2009년도 시무식이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1층 대강당에서 있었다. 먼저 승진자 및 신임연구실장에 대한 임용장 수여가 있었다. 시무식에서 어윤덕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2009년은 인천시의 변혁과 발전을 가져다 줄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연구원 전체가 어느 분야에서건 역량을 발휘하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애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무식이 끝나고 원장과 직원 상호간의 신년인사를 나누고, 캐치프레이즈를 제창하며 전직원 기념촬영을 했다.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9년 1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행사]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회의(1.15):한국행정연구원 02-564-2000

◆[행사]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연구협의회(1.19):국토연구원 031-380-0114

◆[토론회] 도시건설 및 해양항만분야전문가토론회(1.20):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032-562-5811

◆[행사] 택시총량제 등 제도개선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1.21):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행사] 교통 SOC사업 투자평가방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세미나(1.28):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포럼] 국토비전 2050포럼(1.29):국토연구원 031-380-0114

◆[심포지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Green New Deal 과학기술정책 심포지움(1.2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2-3284-1800

◆[행사]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회의(1.15):한국행정연구원 02-564-2000 ◆
[행사]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연구협의회(1.19):국토연구원 031-380-
0114 ◆[토론회] 도시건설 및 해양항만분야전문가토론회(1.20):인천광역시 인재개발
원 032-562-5811 ◆[행사] 택시총량제 등 제도개선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1.21):한
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1월의 인천역사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9년 1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1월

1916년 1월 15일-인천상업회의소 설립인가

▶현재의 인천상공회의소. 1885년 국내 상권 수호를 위해 결성한 인천 객주회가 효시이다. 1905년 인천조선인상업회의소가 창립된 뒤 1916년 인천일인상업회의소와 합병되어 인천상업회의소로 재발족하였으며 1930년 인천상공회의소로 개칭하였다. 1944년 경기도상공경계회 인천지부로 개편된 뒤 1946년 8월 10일 임의단체 인천상공회의소로 조직되었으며 1952년 12월 20일 현행 상공회의소법(법률274)이 제정·공포되었다. 1994년 3월 현재의 남동구 논현동으로 사옥을 이전하였다.

1946년 1월 10일-동포포로 2,500명 하와이서 인천항 귀환

1946년 1월 21일-재일동포 1,600명 인천항 귀환

1946년 1월 5일-하와이 교포 2,581명 인천귀환

1951년 1월 26일-해병대 1.4후퇴 후 인천상륙

1970년 1월 2일-강화대교 개통

1984년 1월 1일-시민자율버스 운행 개시

1986년 1월 30일-문화회관에 인천향토역사관 개관

1987년 1월 30일-기아자동차 프라이드 대미 첫수출

1989년 1월 1일-계양 영종 용유면 인천시 편입

1989년 1월 30일-인천서 부산 대구 광주고속버스 운행

1996년 1월 1일-수인선 운행 중단

▶1937년 8월 소래, 남동 등의 염전지대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경기만으로 수송하기 위해 안산~수원간 52.8km의 수인선이 개통되었으나 교통수단이 증가하면서 송도역~남인천역간 5.9km의 운행을 중단했고, 이어 92년 7월에는 소래역~송도역 운행이 중단됐다. 그러다 점차 경제성이 낮아져 1995년 12월 31일까지 운행하고 수인선은 완전히 폐선되었다. 앞으로 인천과 수원을 연결하는 수인선 복선전철의 1단계 사업인 인천 연수구 송도역에서 시흥시 오이도역 구간이 오는 2011년 개통할 전망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도 수인선 건설사업에 국비 1천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1단계 사업인 오이도역에서 송도역 구간은 오는 2011년 개통하고, 2단계 사업인 송도역에서 인천역 구간은 201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 1월 28일-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상량식

1999년 1월 29일-경인전철 부평~구로 복복선 구간 개통

2000년 1월 17일-북성동 중국인촌입구서 패루 기공식

2000년 1월 25일-자연신탁주민운동 강화도갯벌 보전후보지 선정

2001년 1월 20일-간석동 중앙공원 개장

▶1987년 조성되기 시작된 중앙공원은 남구 관교동 인명여고 부근에서 남동구 간석동 수림공원 주변을 잇는 길이 3040m, 면적 35만7180㎡(10만8000여 평)에 달하는 초대형공원. 낡은 주택과 축사, 그리고 '붉은 마을'이라고 불렸던 판자촌이 있었던 자리에 초대형 공원이 조성된 것이며, 중앙공원은 1-9지구로 나뉘어 지구별로 시설 등에 차별화를 두고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2002년 1월 24일-굴업도 핵폐기장 반대백서 발간

*****위의 내용은 인천일보사발행 인천연감 인천사연보에서 부분 발췌 수록한 것임.

앞으로 인천과 수원을 연결하는 수인선 복선전철의 1단계 사업인 인천 연수구 송도역에서 시흥시 오이도역 구간이 오는 2011년 개통할 전망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도 수인선 건설사업에 국비 1천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1단계 사업인 오이도역에서 송도역 구간은 오는 2011년 개통하고, 2단계 사업인 송도역에서 인천역 구간은 201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부다비 사디야트 섬 문화특구(Saadiyat Island Cultural District) 조성 계획

아랍에미리트연합(UAE, United Arab Emirates)은 아라비아 반도 동부에 있는 7개의 아랍 토후국(土侯國, Emirates)이 연합한 연방국가다. 흔히 UAE하면 두바이(Dubai)를 연상하게 되는데, 두바이는 세계 최고 높이의 버즈 두바이 타워, 야자수 형태의 대규모 인공섬 팜 주메이라, 7성급 버즈 알 아랍 호텔 등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을 바탕으로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의 수도는 아부다비(Abu Dhabi)로서, 아부다비의 왕이 UAE의 대통령을 맡고 있고, 석유 매장량면에서도 두바이의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현재 인구수나 경제규모 측면에서 두바이가 압도적으로 앞서 가고 있지만 아부다비는 여전히 역사와 전통 그리고 행정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한다. 이처럼 자부심이 강한 아부다비 입장에서는 급속한 성장을 보여 왔던 두바이를 따라가기 위한 성장 전략을 모방하였지만, 두바이와는 차별화된 아부다비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싶어 했다. 이와 같은 고민에서 출발한 아부다비 미래전략을 상징하는 계획이 바로 세계적인 문화시설을 집결시켜 문화허브 도시로 건설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디야트 섬 문화특구 조성 프로젝트다. 두바이에는 없는 문화적 요소를 앞세워 수도로서의 아부다비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이라 볼 수 있는데, 시설 중심의 계획만으로 진정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많다.



그림 사디야트 섬 문화특구 조감도

자료: 2008년도 전국시도연구원 해외연수보고서

사디야트 섬은 인공섬이 아닌 자연섬으로 면적은 약 27km²다. 사디야트섬 개발은 2018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30여개의 호텔 및 리조트 그리고 1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급 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섬 전체를 총 7개의 테마거리를 주제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문화지구(cultural district) 조성 프로젝트다. 4개의 대형 미술관 및 박물관 그리고 공연센터 등이 들어서는 문화지구를 계획함에 있어, 최고의 디자인과 세계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저명한 건축가들을 동시에 참여시켰다.



그림 해양박물관(Maritime Museum)



그림 루브르박물관(Louvre Museum)





그림 공연예술센터(Performing Arts Center)



그림 구겐하임 미술관(Guggenheim Museum)

자료 : <http://www.spiegel.de/fotostrecke/fotostrecke-19144.html#backToAr>

문화지구에는 구겐하임 아부다비 박물관 (Guggenheim Abu Dhabi), 루브르 아부다비 (Louvre Abu Dhabi), 공연예술센터(Performing Arts Center), 해양 박물관(Maritime Museum), Sheikh Zayed 국립 박물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겐하임 아부다비 박물관 (Guggenheim Abu Dhabi Museum)

미국의 건축가 Frank Gehry가 설계한 것으로, 박물관의 기능을 영원한 소장품, 특별 전시회에 대한 화랑, 미술과 기술 센터, 현대 이슬람 문화 센터, 어린이 미술 교육 시설, 기록 보관소, 도서관, 연구 센터와 최신의 보존 연구소로 구성하였다. 41,000㎡ 규모에 16,000㎡의 전시공간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구겐하임 시설로 예정하고 있다.

루브르 아부다비 (Louvre Abu Dhabi)

프랑스 건축가 Jean Nouvel은 루브르 아부다비를 설계함에 있어 사디야트 섬의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고려했다고 한다.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외국에 소장품을 빌려주는 것이고 또한 두바이가 갖지 못한 기능을 아부다비가 먼저 선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조되는 사업이다.

해양박물관 (Maritime Museum)

해양박물관은 일본 건축가 Tadao Ando가 아부다비의 주변 자연 경관과 해양의 전통성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설계한 것으로, 바다와 육지가 합쳐지는 반사적인 표면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배모양 같은 내부는 전시 공간을 통해 방문객을 인도하려는 의도로 항해하는 배의 갑판 모양을 갖추었다.

공연예술센터 (Performing Arts Centre)

이란 출신의 영국인 여성 건축가 Zaha Hadid가 디자인하였으며 음악, 극, 춤의 가장 섬세한 면을 잘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바다로 확 트인 전경과 아부다비의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각 극장의 로비가 바다를 향하도록 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그 주변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구조다.

Sheikh Zayed 국립박물관

H. H. 세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아랍에미리트연합 초대 대통령)을 기리기 위하여 건축하는 것으로, 국제공모를 실시하여 11개국 세계 최고 건축가 12명이 경쟁에 참가하였고, 이 중에서 영국의 건축 회사인 Foster+Partners가 결정되었다.

사디야트섬은 인공섬이 아닌 자연섬으로 면적은 약 27km²다. 사디야트섬 개발은 2018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30여개의 호텔 및 리조트 그리고 16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급 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섬 전체를 총 7개의 테마거리를 주제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문화지구 조성 프로젝트다. 4개의 대형 미술관 및 박물관 그리고 공연센터 등이 들어서는 문화지구를 계획함에 있어, 최고의 디자인과 세계의 관심을 끌기 위해 국제적으로 저명한 건축가들을 동시에 참여시켰다.

인천시 개항장 도보관광 안내체계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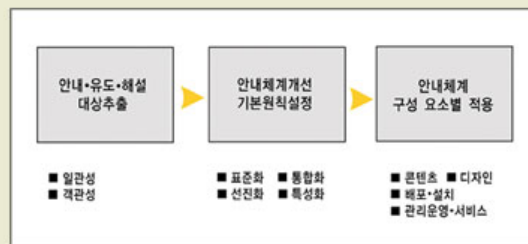
이 연구는 중구 개항장 지역의 도보관광 안내체계 현황 및 문제점과 관련 법·제도 및 정책동향 분석을 토대로 도보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광안내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도보관광 안내체계는 '도보로 관광매력물을 찾아 이동하는 관광객의 경로 탐색과 관광매력물에 대한 이해와 관계되는 관광행동을 지원하는 안내정보·안내소·안내원으로 구성되는 관광안내매체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안내체계는 방문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류시간을 연장시키며 이 과정에서 관광소비지출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대상이 된다.

특히, 연구 대상지인 중구 개항장 지역은 근대역사문화자원이 밀집하여 도보관광 진흥여건이 양호하고 인천시 도시재생정책과 관광정책 상 도보관광 진흥지구로 반영되어 있어 도보관광 활성화의 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에서는 도보관광 안내체계 구축의 기본원칙으로 표준화, 통합화, 선진화, 특성화 등 4대 원칙을 제안하고, 안내·유도·해설 대상 추출과 도보관광 안내체계 구축의 4대 제안 원칙을 통합적인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도보관광 안내체계 개선의 통합적 과정〉



연구에서는 제안한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개항장 지역의 안내정보, 안내소, 안내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안내체계 요소별 집행방안과 추진주체별 역할을 다루고 있다. 특히, 안내체계 각 구성요소가 상호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관광공사 등 각 주체의 상호 협력 및 통합적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도표지 개선안 예시〉



인천광역시 메가이벤트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 연구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는 2009세계도시축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같은 메가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며, 메가이벤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 체계의 마련과 자원봉사를 통한 다각적인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메가이벤트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제시를 통해 인천의 자원봉사분야가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국내·외 메가이벤트 자원봉사 사례와 시사점

국내의 메가이벤트 사례는 서울시의 2002한·일FIFA월드컵, 부산시의 2002부산아시아안게임, 대구시의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조사하였다. 국외의 사례로는 일본의 아이치박람회 사례와 요코하마시의 2002한·일FIFA월드컵 사례를 조사하였다.

국내 사례에 의한 시사점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일원적 관리체계의 중요성,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자원봉사자 인력의 적절한 배치 필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외 사례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민참여의 주요 통로로 활용하고 있는 점, 소모임을 기반으로 한 메가이벤트 자원봉사자 조직을 구성하는 점,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자원봉사 교육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점, 메가이벤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사후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네 가지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메가이벤트 자원봉사 경험자 인식분석

또한 메가이벤트에 참여하였던 자원봉사 경험자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총 13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집단을 구성하고 면접내용을 내용분석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자원봉사자들의 인식은 메가이벤트 자원봉사 참여동기, 자원봉사자 선발, 자원봉사 교육, 자원봉사자 지원, 자원봉사자 태도의 상위범주로 도출되었다. 인식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들은 메가이벤트 자원봉사의 경험이 풍부하였고, 자원봉사자 선발과정, 자원봉사 교육 등이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자원봉사자 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 여건 마련, 자원봉사 관리자의 태도 개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메가이벤트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활성화 방안

메가이벤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우선 메가이벤트 자원봉사 업무를 통합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 교육을 강화하고 봉사의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는 지원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메가이벤트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자원봉사자 배치를 실시하고, 봉사자 활동관리 정보화를 기반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도 리더자원봉사자 육성과 자원봉사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지원하고, 젊은이와 남성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홍보가 요구된다.

■ 자원봉사활동 성과증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

자원봉사활동의 성과증진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발대식, 해단식, 시상 및 포상 등 특별행사를 통한 격려를 실시하며, 봉사활동을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메가이벤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활동하였던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인 사후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하며, 봉사활동에 대한 실비지원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향후 메가이벤트 자원봉사 분야에 대해 축적된 지식이 차기 메가이벤트에서 활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록유지와 연구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표를 통해 본 인천 : 관광 분야

■ 관광수요부문 지표

○ 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원년이 될 2009 인천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지표를 통하여 우리시 관광분야 현황을 살펴보았다. 관광수요부문의 지표는 다음과 같이 외래관광총량과 국민국내관광총량으로 구분된다.

○ 외래관광총량 분석 결과, 2007년 기준 방한외래객 입국자수(648만명)의 69.2%인 446만명이 인천을 통하여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지역 외국인관광객방문경험률(중복 응답)은 19.1%, 관광호텔외국인 연투숙객(64만명)은 16개 시도 중 11위로 분석되었다.

○ 국민국내관광총량은 당일관광과 숙박관광시장, 인천시민 관광여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당일관광 분석 결과, 당일관광시장방문경험총량 7,459천일, 당일관광시장방문경험률 4.1%로 16개 시도 중 11위로 분석되었다. 숙박관광은 숙박관광시장방문경험총량 8,886천일, 숙박관광시장방문경험률 3.4%로 16개 시도 중 11위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천시민 관광여행경험률은 83.9%로 전국민 평균(91.1%)과 비교하여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표〉 관광수요부문 우리시 위치

구분	지표	단위	실적	비고
외래 관광 총량	방한외래객입국자수	만명	648	-
	방한외래객 중 인천 도착객 수	만명(%)	446(69.2)	김포 44.5만명, 부산 80만명
	외국인관광객방문경험률	%	19.1	서울 73.4%, 부산 18.8%
	관광호텔외국인연투숙객	만명	64	서울 747만명, 부산 67만명
국민 국내 관광 총량	당일관광시장방문경험총량	천일	7,459	서울 24,198천일, 부산 10,842천일/16개 시도 중 11위
	당일관광시장방문경험률	%	4.1	서울 13.2%, 부산 5.9%
	숙박관광시장방문경험총량	천일	8,886	서울 26,479천일, 부산 15,772천일/16개 시도 중 11위
	숙박관광시장방문경험률	%	3.4	서울 8.3%, 부산 5.3%
	인천시민 관광여행 경험률	%	83.9	전국민 평균 91.1%

자료: 한국관광공사(2008), 2007 외래관광실태조사 / 2007 국민여행실태조사를 참고로 작성

○ 한편, 연도별 입국하였으나, 2005년 71.1%에서 2007년 69.2%로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2007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 관광객 수는 2005년 20.9%에서 2006년 13.9%로 7%p 감소하였으나, 2007년 19.1%로 약 5%p 증가하였다.

〈표〉 연도별 외래관광객 수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외래 관광객	한국(명)	6,022,752	6,155,046	6,448,240	
	인천	도착객 수(명)	4,316,573 (71.7%)	4,310,505 (70.0%)	4,464,430 (69.2%)
		관광객 수(명)	1,259,755 (20.9%)	855,551 (13.9%)	1,231,613 (19.1%)

자료: 한국관광공사(2008), 2007 외래관광실태조사 / 한국관광공사(2007), 한국관광동계 / 한국지식경제시스템(www.tour.go.kr)를 참고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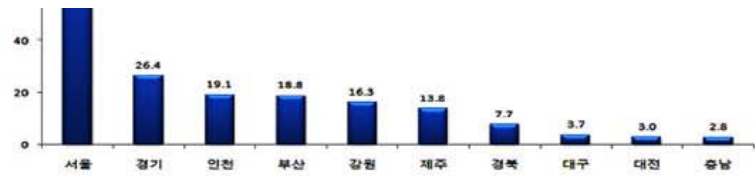
○ 외래 관광객의 인천방문경험률은 서울(73.4%)과 경기(26.4%) 등 수도권 내 타지역의 방문경험률과 비교하여 볼 때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지난호 보기

2009년 1월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그림 1〉 외래관광객 방문도시

주 : 울산(2.6%), 광주(1.7%), 전남(1.7%), 경남(1.7%), 전북(1.2%), 충북(0.4%), 기타(2.5%), 없다/모름/무응답(6.1%)

자료: 한국관광공사(2008), 2007 외래관광실태조사

○ 인천 시민의 여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내여행경험률은 83.9%로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국내여행 참가횟수는 4.94회로, 1위를 차지한 광주(11.81회)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천시민의 국내여행 참가일수를 분석한 결과, 8.54일로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 인천 시민의 국민여행 경험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국내여행방문지로서의 인천을 분석한 결과, 인천은 국내 숙박여행방문지 중 11위(3.4%), 당일여행방문지 중 11위(4.1%)를 기록하였다.

〈표〉 국민여행 실태조사 항목별 주요결과(2007년 기준)

구분		전체	인천	비고
국내 여행 경험률 (%)	총 경험률	91.1	83.9	· 서울 89.6%, 부산 91.6% · 울산 1위(98.4), 인천 16위
	국내숙박여행	78.1	72.1	· 서울 81.1%, 부산 74.6% · 울산 1위(85.4%), 인천 15위
	국내당일여행	76.2	65.4	· 서울 69.2%, 부산 79.7% · 제주 1위(85.8%), 인천 15위(전남 공동)
국내 여행 참가 횟수 (회)	총 횟수	7.57	4.94	· 서울 6.04회, 부산 6.20회 · 광주 1위(11.81), 인천 16위
	국내숙박여행	3.00	2.21	· 서울 2.78회, 부산 2.74회 · 광주 1위(4.59), 인천 15위
	국내당일여행	4.58	2.73	· 서울 3.26회, 부산 3.46회 · 제주 1위(8.86회), 인천 16위
국내 여행 참가 일수 (일)	총 일수	11.94	8.54	· 서울 10.34일, 부산 9.70일 · 광주 1위(16.88일), 인천 16위
	국내숙박여행	7.36	5.81	· 서울 7.08일, 부산 6.25일 · 광주 1위(9.66일), 인천 16위
	국내당일여행	4.58	2.73	· 서울 3.26일, 부산 3.46일 · 제주 1위(3.29일), 인천 16위
국내 여행 방문지 (%)	숙박여행방문지	-	3.4	· 서울 6.2%, 부산 4.3% · 강원 1위(14.0%), 인천 11위
	당일여행방문지	-	4.1	· 서울 8.7%, 부산 4.2% · 경기 1위(18.0%), 인천 11위

자료: 한국관광공사(2008), 2007 국민여행실태조사를 참고로 작성

■ 관광공급부문 지표

○ 인천시 관광공급부문 지표 중 관광자원·시설부문 지표를 살펴보면, 지정관광지 2개소(서포리, 마니산), 관광단지 2개소(용유·무의 관광단지, 송도관광단지), 관광특구 1개소(월미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 관광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여행업은 313개로 전국 여행업의 2.9% 수준으로, 7대 광역시 중 울산 다음으로 여행업체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객이용시설업은 13개로 전국 사업체의 6.7%, 관광편의시설업은 78개소로 전국의 4.5% 수준으로 나타났다.

○ 한편, 관광숙박업은 38개가 등록되어 있어 전국 대비 4.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숙박업체 객실 수는 2,753객실이며, 이 중 특급관광호텔 객실수는 1,322객실로 분석되었다. 숙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등에 대비하여 호텔 5개소 1,442실을 건립 중에 있다.

○ 관광교통·정보체계 공급지표 분석 결과, 시티투어 노선은 3개 노선으로, 서울(5개 노선), 부산(3개 노선)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광안내소는 총 10개소로, 전국 관광안내소의 3.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관광공급부문 우리시 위치

구분	지표	단위	실적 (전국대비율)	비고
관광자원·시설	지정관광지 개소수	개소	2(0.9)	· 전국 230개소 지정 · 서포리, 마니산
	지정관광단지 개소수	개소	2(11.8)	· 전국 17개소 지정 · 용유·무의, 송도
	관광특구 개소수	개소	1(3.8)	· 전국 26개소 지정 · 월미관광특구
	여행업	개소	313(2.9)	· 전국 10,681개소 등록
	관광숙박업	개소	38(4.9)	· 전국 775개소 등록
	관광객이용시설업 ⁹⁾	개소	13(6.7)	· 전국 194개소 등록 · 서울 76개소, 부산 15개소
	국제회의기획업	개소	0(0.0)	· 전국 155개소 등록 · 전국 17개소 허가

관광 공급 부문	관광 사업체	카지노업	개소	1(5.9)	.서울 3개소, 부산 2개소, 제주 8개소
		유원시설업	개소	6(3.7)	.전국 163개소 허가
		관광편의시설업	개소	78(4.5)	.전국 1,748개소 지정 .서울 697개소, 부산 183개소
		관광숙박업체 객실수	객실	2,753(4.5)	.전국 61,540객실 등록 .서울 21,007실, 부산 5,539실
		특급관광호텔 객실수	객실	1,322(4.2)	.전국 31,507객실 등록 .서울 14,328실, 부산 2,923실
		국제회의 개최건수	건	6(1.3)	.전국 456건 개최 .서울 171건, 부산 78건
	관광교통· 정보체계	시티투어 노선수	노선	3(10.7)	.전국 28개 노선 운영 .서울 5개, 부산 3개 노선
		관광안내소 개소수	개소	10(3.0)	.전국 330개 개소 운영, .서울 23개, 부산 15개

주 1): 관광진흥법 상 관광객이용시설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의미함.

주 2): 관광편의시설업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을 의미함.

자료: 한국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문화체육관광부(2008), '2007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한국관광공사(별간 예정), '전국 관광안내소 현황조사, 업종영향평가 및 서비스모니터링'을 참고로 작성

○ 최근 5년간 전국 관광사업체는 23.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7대 광역시의 경우 24.7%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시 관광사업체 성장률은 107.9%로 7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행업은 2003년 150개 업체에서 2007년 313개 업체로 2배 이상 증가된 수치를 나타낸다.

〈표〉 최근 5년간 관광사업체 등록현황

		(단위:개소수)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인천	여행업	150	150	165	308	313
	관광숙박업	23	31	54	55	38
	관광이용시설업	2	3	4	2	13
	국제회의시설업	0	0	0	0	0
	국제회의기획업	0	0	0	0	0
	카지노업	1	1	1	1	1
	유원시설업	13	11	12	6	6
	관광편의시설업	27	39	40	59	78
	소계	216	235	276	431	449
7대광역시		6,893	7,232	7,856	8,450	8,594
전국		11,044	11,520	12,507	13,499	13,632

자료: 한국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한국관광협회중앙회(<http://www.koreatravel.or.kr/>)

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원년이 될 2009 인천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지표를 통하여 우리시 관광분야 현황을 살펴보았다. 관광수요부문의 지표는 다음과 같이 외래관광총량과 국민국내관광총량으로 구분된다.